



미주 순회 낭독회를 다녀와서…



한유주 작가

이번 여행이 내게는 두 번째 미국행이었다. 말끔히 정리된 여정표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들을 확인하자 묘한 기대감이 일었다.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을 시작으로 다 합해 다섯 도시의 다섯 대학을 방문하는 여정이었다. 각각의 대학마다 낭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성란 선배는 〈옆집 여자〉와 〈촛농 날개〉, 그리고 〈곰팡이 꽃〉을, 나는 〈제의 수요일〉과 〈흑백 사진사〉를 읽기로 되어 있었다. 내게는 낭독회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책은 읽는 편이 듣는 것보다 낫다는 고정관념이 부지불식간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낭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끔 애매한 표정을 지어보이기는 했지만, 끝까지 참을성 있게 낯선 언어로 된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한국에서었다면 쉽게 듣지 못했을 법한 질문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실 완전히 낯선 질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문학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는 점이 달랐다. 미국의 출판시장에는 번역문학보다 자국어문학이 대단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적은 비율로 할당되어 있는 번역문학 시장에서 무리카미 하루키를 제외하고 나면 그들이 아는 외국문학, 다시 말해서 아시아 문학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항상 내가 한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단점보다는 많은 장점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왔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유럽권이나 아시아권의 문학(혹은 예술, 사회, 정치 등)을 비교적 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문학의 보편성, 혹은 세계성에 대한 질문을 해오자 다소 답답하면서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답변을 할 시간은 예상대로 부족했다.

그러나 물론 무거운(?) 생각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프로보를 들고 싶다. 물론 교도들이 학생수의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브리검 영 대학이 있는 도시였다. 캐스케이드 산맥으로 둘러싸인 프로보는 조용하고 서늘한 대기에 감싸여 있었다. 브리검 영 대학 캠퍼스에 들어섰을 때,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곳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커플들이 눈에 띠었다.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선해보였다. 물론 사람은 겪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준 첫인상은 생각보다 놀라웠다. 대개 1년 가량 한국에 나와 선교활동을 한 적이 있는 그들은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한국어로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미국이 큰 나라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의 미국은 생각보다 거대했다. 보름간의 여행 동안 시간이 네 번 바뀌었다.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어바인, 프로보와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조지아 대학이 있는 애신스까지, 다섯 도시를 방문했다기보다는 다섯 나라를 여행했다는 기분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즐거웠다. 언제고 그곳들을 다시 찾아가게 될까. 나는 수많은 메일 주소들을 수집해 들어왔다. 소중한 인연들이다. 이번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국제교류진흥회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폴린 선생님, 그리고 하성란 선배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찌면 뻔하게 들릴 수 있을 감사인사일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뻔한 말 속에 진심이 있는 법이다.

